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 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습니다.

## 경남 충무중 이선민 교사의 영어·역사 교과 융합수업 ‘경복궁 영어안내도’ 만들며 영어표현능력·역사지식 쑥!

이선민 경남 충무중 영어 교사는 지난 1학기에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역사 교과 융합수업’을 진행했다. 충무중은 매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생들이 두 곳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은 뒤 수학여행을 떠나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기획한 수업이다.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1·2차시에 체험 장소를 소개하는 영어 지문을 읽고, EBS 동영상을 보면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이해한다. 3차시에는 경복궁을 소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안내하는 ‘영어 안내문’을 모둠별로 제작한다. 교사가 수업을 구성할 때는 중2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역사 지식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배우지 않은 역사 지식을 영어 수업에서 다룬다면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역사 교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물과 역사를 영어로 배운다”면서 “영어 표현능력과 역사 지식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대상	과목	시행시기	차시
중2	영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융합수업의달 ‘영어·역사 융합수업’	총 3차시
학습주제	경복궁 및 국립중앙박물관 안내문 제작하기		
학습목표	영중933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영중944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 나 글을 쓸 수 있다. 영중9462-2.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을 쓸 수 있다.		

<b>학습목표</b>	영중933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b>1차시 수업주제</b>	경복궁의 역사적 의미와 전각의 역할을 영어로 이해할 수 있다.	
<b>2차시 수업주제</b>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에 관련된 영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1, 2차시 수업은 학교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꿔 진행해도 무방		
<b>단계</b>	<b>학습내용</b>	<b>교수-학습 활동</b>
<b>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목표 제시</li> <li>-학습동기유발을 위한 동영상 감상</li> <li>-지문 속 새로운 단어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을 주제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영어 수업임을 인식한다.</li> <li>▶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배경지식을 끄집어낸다. (1차시) 경복궁의 역사와 관련된 EBS 지식채널e 영상 감상 (2차시)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홍보영상 감상</li> <li>▶ 영어 지문 속 새로운 단어를 교사와 함께 학습한다.</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어 지문을 조별로 해석</li> <li>-역사 Pop Quiz를 통한 역사 지식 자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지문을 모둠별로 해석해 본다. (1차시) 경복궁의 역사와 전각의 역할을 설명하는 영어 지문 (2차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안내하는 영어 지문</li> <li>▶ 조별로 해석한 결과를 발표해보며 내용을 확인해 본다.</li> <li>▶ 역사 Pop Quiz를 맞히며 역사 지식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한다.</li> </ul>
<b>교사의 도움말</b>	<p>교사는 수업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설명하고, 해당 수업에서 배울 내용이 수학여행과 연관이 있음을 인지시킨다. 수업을 시작할 때 EBS 동영상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사 지식을 상기시킨다. 영상을 시청한 후 교사는 △경복궁의 역사 △경복궁 내 주요 건축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신석기~고려시대 유물 등을 3~6줄로 설명한 영어지문이 담긴 활동지를 나눠준다.</p> <p>교사는 영어지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영어 단어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한 뒤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통해 토론하며 친구와 함께 영어 지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조마다 영어실력이 뛰어난 학생을 한명 정도 배치한다.</p> <p>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조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속도가 느린 조에는 도움을 준다. 모둠 활동이 끝나면 모둠별로 해석한 결과물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며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점검한다.</p>	

3차시 수업주제	경복궁 및 국립중앙박물관 안내문 제작하기	
학습목표	<p>영증944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쓸 수 있다.</p> <p>영증9462-2.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을 쓸 수 있다.</p>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목표 제시</li> <li>-조별 수행평가 미션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 미션을 조별로 다르게 하여 제시한다.</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별 수행평가 미션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로 경복궁 안내문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안내문을 제작한다.</li> <li>▶ 조별 수행평가 미션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특색이 담기도록 자유롭게 안내문을 제작한다.</li> </ul>
<p><b>교사의 도움말</b> ▶ 3차시는 교사가 모둠별로 미션을 주고, 학생들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평가하는 수행평가 형식으로 진행된다.</p> <p>미션은 △고구려·백제·신라·조선시대의 인물로 모듬명을 정하는 ‘공통미션’ △경복궁의 4개 주요 건물을 영어로 소개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신라 금허리띠를 영어로 설명하고 금허리띠에 어떤 장식을 추가하고 싶은지 상상해 그려보기 등의 ‘모듬별 미션’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역사 지식에 대해서로 이야기하며 팀원과 함께 영어문장으로 표현해보고, 역사 유물을 새로운 모양으로 재구성해 그려보며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다.</p> <p>교사는 학생들이 미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A3 용지와 색연필, 사인펜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조별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 지식이 부족함을 느낄 때 역사 교과서와 영어 지문이 적힌 활동지를 참고하도록 유도한다. 수행평가에 필요한 역사 지식이 역사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교사가 미리 파악해둬야 수행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p> <p>학생들이 미션지에 지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안내문에 넣고자 할 경우 교사가 이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조별로 특색 있는 수행평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교사는 조별 수행평가를 모니터링하며 잘못된 철자,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해준다.</p>		

## 교사의 코멘트

영어·역사 융합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역사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영어 교사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을 담은 영어 지문을 구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역사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기에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 역사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 지문에 틀린 사실은 없는지 점검하고,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역사 교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전에 교사가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해설사의 안내를 듣고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역사 지식을 쌓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어 지문에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둠 중심의 수행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장점 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은 친구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이선민 경남 충무중 영어 교사